

자녀들의 Fast food 선호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견해조사

주 나 미*(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조교수)

Lisa R. Kennon (University of North Texas, Hospitality Management, Assistant Professor)

본 연구는 자녀들의 패스트푸드 소비에 관한 어머니들의 견해를 조사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패스트푸드 소비를 바람직하게 유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패스트푸드 산업을 주도하는 생산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방법은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Q-sort methodology 기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part 1에서는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질문하였고, part 2에서는 어머니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44개의 카드를 이용하여 Q-sort 기법으로 조사한 후 통계 package SAS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86%가 31-40세의 연령분포를 보였고 46%정도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또한 '본인의 견해와 가장 일치한다'라는 stack에 가장 많이 선택된 카드는 '음식과 식행동에 대한 어린시절의 경험이 아이들의 drl호도 발달에 중요하다'였고 다음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건강식을 선택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로 응답하였다. '본인의 견해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즉 가장 반대되는 생각이다'라는 G stack에는 'fast food 점에서 아침식사로 제공되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fast food 점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다'를 선택하였다. 또한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fast food 점을 선택하는 경우 자녀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함께 음식점에 갔을때 자녀를 위해 음식점에서 배려해 주길 바라는 점은 놀이공간의 확보 및 메뉴개발로 음식의 가짓수와 맛의 향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이 한국의 어머니들은 여전히 가족의 식품소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서양음식이 선택선택 및 식생활에 다양성을 제고하였다 할지라도 fastfood의 지나친 이용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